

이경준교수(서울대 산림자원학과)의

‘쓸모없는 나무’란 없다

7월14일자 국민일보에서

한국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큰 수종은 단연 아까시나무 ...

요즘 출간된 베스트셀러 중 하나는 휠체어 위에 올라앉은 사지 없는 장애인 일본 청년 오토타게씨가 쓴 오체불만족이다. 불굴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필자는 미국 플로리다대 유학중 양쪽 팔 없이 불구로 태어난 여학생이 대학 수영팀의 다이빙 선수로 활약하면서 발가락만으로 글씨를 쓰고, 타자도 치고 음식도 직접 만드는 등 불편함 없이 사는 것을 보았다. 실의에 빠지지 않고 자기자신을 잘 가꿈으로써 보통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누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부르겠는가?

IMF시대에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퇴출대상 1호가 아까시나무이다. 60년대 산림을 녹화하면서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리기다소나무 등 쓸모없는 나무만 골라서 심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이 나무들은 쓸모없는 나무인가?

1982년 유엔 산하 기구인 FAO는 푸름을 더 해가는 한국의 산림에 관한 보고서에서 2차대전 이후 조림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고 극찬하였다. 이만큼 한국은 6·25 전후에 황폐한 산림을 성공적으로 녹화한 모범 조림 국가다. 당시 황폐한 우리 산야에 조기녹화와 사방용으로 심을 수 있는 자생 수종은 거의 없었다. 아까시나무는 외래 수종이지만 척박하고 건조한 토양에서 왕성하게 자라는 특성 때문에 채택됐으며, 70년대까지 농촌의 연료를 해결해 준 고마운 나무이다. 그 당시 아까시나무를 심지 않았더라면 과연 조기녹화 사업이 성공했을까?

아까시나무와 오리나무는 뿌리혹을 가져 비료 없이도 잘 자라는 비료목이다. 생태학적으로 볼 때 아까시나무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나타나서 한 세대동안 흙을 비옥하게 만든 다음, 밑에서 천천히 자라 올라오는 참나무에 밀려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나무이며, 잘 보존된 숲속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과 같이 황폐한 토양에는 우선적으로 비료목을 심어서 반세기 가량 토양을 기름지게 만든 다음에 비옥한 토양을 요구하는 좀더 유용한 경제수종을 나중에 심어야 한다. 환경측면에서 볼 때 아까시나무는 영일 사방지역의 성공적인 사방사업, 태백지역의 탄광폐석지 복구사업, 그리고 자기 스스로 침입하여 서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의 조기녹화에 공헌한 뛰어난 환경수이다. 리기다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미국산 소나무로 재질이 좋은 우리나라 소나무를 솔잎혹파리 피해로 인하여 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매마른 땅에 대신 심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이렇듯 위의 세 수종이 당시 조림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현재의 용도는 개발되어 있는 것인가?

아까시나무는 단연 한국 제일의 밀원식물이다. 한국의 꿀 생산량은 연간 약 7백억원 가량 되는데, 아까시나무꿀은 꿀중에서 가장 우수하며 전체의 70%인 5백억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밀원식물로서의 가치는 목재가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큰 수종은 단연 아까시나무라고 말할 수 있다. 아까시나무의 목재는 꿀 못지않게 훌륭하다. 참나무의 평균 비중이 0.71인데 아까시나무는 0.69로 참나무에 버금가는 강도를 가지면서, 목리가 아름답고 내구성과 방부성이 뛰어나서 마룻바닥과 자동차 적재함의 상판으로 최적이다. 헝가리의 경우 2백년 전에 아까시나무를 도입하여 대나무처럼 곧게 자라는 품종을 육

성, 전국 34만ha에 조림함으로써 30년만에 ha 당 300m'(현재 한국 평균 입목축적의 5배)의 엄청난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오리나무의 목재는 목공예에 이용되고 있다. 목기의 주산지인 남원에서 오리나무로 만든 제기와 그릇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오리나무는 서서히 말리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조각용품으로 쓰이며,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버섯재배용 톱밥으로도 쓰인다. 리기다소나무 목재는 직경이 작고 구부러져서 건축도목에 쓰이지 못하지만, 펄프용, 과일 및 생선상자용, 그리고 최근에는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용 톱밥 제조에 쓰임으로써 환경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에게 고마운 나무들이 '쓸모없는 나무'로 알려지게 된 데에는 홍보부족과 외래수종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편견도 한몫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래 쓸모없는 나무는 없지만, 어떤 나무도 가꾸지 않으면 쓸모없는 나무로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가지치기와 적절한 시기의 솎아 베어주기 등은 필수적이다. 그런 뜻에서 IMF시대에 공공근로사업의 가장 모범적이라고 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쓸모있는 나무를 더 쓸모있게 만들어서 21세기에 닥쳐올 범세계적 자원전쟁에 대비해야겠다.

7월1일부터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 무기한 단속

앞으로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속이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소가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금년들어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감자, 건고추등이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농산물 도·소매상, 식육점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요원 390개반(780명)을 투입,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154,976개소의 유통판매장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848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중 원산지를 속여 허위로 표시판매한 1,167개 업소는 고발 또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681개 업소에 대하여는 4억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이는 허위표시 적발건수가 전년동기(453건)보다 2.6배가 증가된 것으로서 원산지단속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한 결과로 분석된다.

▶주요 허위표시품목 ▷돼지고기(410건) ▷마늘(195건) ▷고춧가루(129건) ▷쇠고기(88건) ▷도라지(46건) ▷땅콩(37건)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하반기 중에도 수입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한약재, 고

사리, 도라지 등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7월1일부터 수입급증 품목, 평소 원산지 허위표시가 많은 취약품목, 상습 위반업소 등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위해 사법경찰관 292명을 동원하여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한다.

△추석절, 연말 등 농산물의 유통 성수기에는 본원의 특별단속 계획에 의한 적극적인 일제 단속을 펴고, 평상시에는 본원계획과 별도로 지역별로 대상품목, 단속일정, 단속반편성, 단속방법 등 지역 실정에 알맞는 지원별 자체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형 부정유통행위에 대하여는 경찰·검찰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며, 수시로 원산지 단속 상황을 언론사 기자와 동행취재 보도도 추진할 계획.

- ▶원산지표시위반 처벌규정
- ▷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5조 및 제38조
- 원산지 허위(위장·둔갑)판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